

지구촌 양계뉴스

한국

증평서 다리 넷 달린 닭 발견



충북 증평에서 다리가 넷 달린 닭이 발견됐다.

지난 6월 13일 증평군

에 따르면 군내 한 양계장에서 며칠 전 닭 출하 작업을 하던 중 엉덩이 부근에서 다리가 2개 더 달려 있는 기형적인 닭이 발견됐다.

이 닭은 부화한 지 90여일 가량 됐으며 같은 시기에 태어난 다른 닭과 비교해 몸무게가 정상이고 건강도 양호한 편이다.

주민 김모씨는 “며칠 전 근처의 양계장에 일을 도와주려고 갔다가 다리가 4개인 닭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양계장 주인에게 이 닭을 얻어와 닭 사육장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엉덩이에 달린 다리는 거의 사용하지 못해 움직일 때마다 덜렁덜렁한다”며 “이 닭은 먹이도 잘 먹는 등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닭을 관찰한 충북 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원인은 발견할 수 없고 단순 기형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형으로 태어난 닭은 보통 병아리 때 폐사하는데 이 같이 성장한 것은 쉽게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 증평=연합뉴스

브라질

닭고기 수출 40% 증가세 기록

2007년 5월 브라질산 닭고기 수출량이 27만 3천900톤에 달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현지 언론이 지난 6월 18일 보도했다.

브라질 닭고기수출협회(Abef)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닭고기 소비량이 올해 들어 증가세를 회복하면서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4분기의 경우 AI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 닭고기 소비량이 70% 줄어들면서 브라질 내 닭고기 생산업체들의 수출량도 크게 감소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소비량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브라질산 닭고기 수출은 3월 30만3천400톤, 4월 26만3천700톤, 5월 27만3천900톤으로 점차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브라질산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물량은 5% 증가한 285만톤, 수출액은 6.8% 증가한 34억2천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상파울루=연합뉴스

체코

칠면조에서 AI 감염

지난 6월 20일 체코 동부 한 농장에서 키우는 칠면조에서 발생한 AI는 H5N1형의 AI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21일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에 체코 수의관들은 수천수의 칠면조를 살 처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 프라하에서 150km 떨어진 Tisov지역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까지 보호구역으로 선언하고 동물 검사 및 이동 제한조치 등 방역 조치를 취했다.

지금까지 체코에서는 야생 백조 14마리에서 H5N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으며 가금류에서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로이터

일본

브로일러 사육농가는 감소하고 사육수수는 증가

일본 농림수산성이 최근 식조유통통계를 발표했다(2월 1일 현재).

이에 따르면, 브로일러 사육호수는 2,583호로 전년에 비해 0.3%(7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사육수수는 1억528만1천수로 전년에 비해 1.1%(112만3천수), 1호당 사육수수는 4만800수로 1.5%(600수) 증가했다.

도도부현별 사육수수는 가고시마, 미야사키, 이와테 순으로, 이 3현의 사육수수는 전체의 49.0%에 해당한다.

- KM

러시아

체코산 가금수입 금지

러시아는 체코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러시아 내부로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체코산 가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수입금지 대상은 모든 가금류와 알, 가금육, 가금육 제품이며, 열처리된 제품과 가금류 사료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로이터